≪莊子≫에 나타난 '變'의 사용과 가치

김 덕 삼*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變'의 사용
3. '變'의 구조
4. '變'의 가치
5.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본고에서는 장자 개인의 사상이 아닌, ≪장자≫라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장자≫ 전반에 나타난 '變'의 사용을 파악하고, ≪장자≫가 전하는 '變'의 가치와 의미의 메시지를 풀어보려 한다. 베르그송도 지적했던 것처럼 철학에 가장 결핍되어왔던 것이 正確性이다.[1] 그래서 본고에서는 ≪장자≫에 나타난 '變'의 사실적 형태에 집중하여 논의를 하려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위에 차후 발전된 연구에서 가치적인 문제를 다루려 한다. 예를 들어, 본고에서 주안점을 둔 ≪장자≫의 '變'에 대해서도, ≪장자≫에서는 '變' 이외에도 '化' 또는 '變化'가 사용되었고, '化' 또는 '變化'가 '變'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 대진대학교 창의미래인재대학 부교수

1) 그것은 철학의 여러 體系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꼭 맞게 재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것들은 현실보다 더 크게 재단되었다. 앙리 베르그송(1927), 이광래 역, ≪사유와 운동≫, 서울: 문예출판사, 1993년, p.9.

www.kci.go.kr

것이다.[2] 또한 '變'을 거론하면서 ≪장자≫에 나타난 '化'하고의 비교나 '變化'하고의 차이를 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본고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하고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문제이기에 본고에서는 생략하려한다.[3] ≪장자≫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기에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미시적 혹은 의미론적 접근보다, '變'이라는 것이 ≪장자≫에 실재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가치를 생각해 보는 정도에서 연구 범위를 제한할 것이다.

본고에서 '變'을 다루려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대사회에서 '變'의 의미가 더욱 중요하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과거 100년에 걸쳐 일어났던 변화가 10년, 아니 단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일어나는 시대다. 그 속도가 엄청날 뿐 아니라 규모가 거대하고, 방향마저 알아차리기 힘들다. '변화'라는 단어가 시대를 점령해버린 듯하다.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상황을 설명할 길이 없고, 내일의 가능성도 이야기할 수 없다."[4]

---

2) '變', '化', '變化'라는 용어는 서로 바꿔 사용해도 무방할 정도로 의미상의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천도〉, 〈천운〉, 〈칙양〉, 〈천하〉에서처럼 하나의 단어를 이루어('變化')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또는 '變', '化'가 구별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變'과 '化'의 의미상의 차이를 가지고 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우선적으로 '變'의 사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3) 어떤 면에서 용어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한 형식적 차이의 문제일 수 있다. 기존에 많은 논문에서 다루었다.(김경희, <≪장자≫의 變과 化의 철학>,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년, 김경희, <장자의 변화로-변과 화의 차이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75권, 2006년 등)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는 止揚하려한다. 사실 장자와 ≪장자≫에 대한 저자, 작성연대, 다양한 편집본 등과 관련된 고증적 문제도 명확하지 않고, 텍스트 자체가 다양한 글이 섞여있기에 일관된 통일성을 맞추려는 것 자체가 어렵다.(金德三, <莊子外雜篇研究>, 中國社會科學院 博士學位論文, 2002年) 이러한 대상을 놓고 너무 미시적으로 논하는 것은 자칫하다가 그 자체가 사상누각이나 공허한 얘기가 될 가능성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 이러한 것이 오늘의 인문학에서 경계할 바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는 아래의 논문에서 다루었다. (김덕삼, 이경자, <顔元의 비판정신과 인문학의 반성>, 유교사상문화연구 62집, 2015년)

4) 최윤식, 김건주, ≪2030 기회의 대이동≫, 서울: 김영사. 2014년, p.5. 변화 자체에 대한 성찰은 적지만, 변화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다. 특히 지금 우리는 매우 빠른 변화의 시대에 도입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제2의 기계시대≫에서는 "체스판의 첫 번째 칸에는 쌀 한 알을 놓고, 두 번째 칸에는 두 알을, 세 번째 칸에는 네 알을 놓는 식으로, 다음 칸으로 갈수록 쌀알의 수를 앞 칸보다 두 배씩 늘리는 겁니다."며 칸을 옮길 때마다 배가를

현실의 차원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그래서 "사고의 영역에서 시간을 배제하면 불변으로 고정된다. 영원불변이나 고정성을 말하는 것은 사고의 차원에서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른다.[5] 변화는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변화가 이처럼 현대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베르그송이 말한 것처럼 "요컨대 보통 우리는 변화에 시선이 가는 것이지 변화를 발견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변화를 말하지만 변화에 대해 사유하지 않는다."[6] 그래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변화하는 현상에 대한 논의는 많아도, 변화 자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變'에 대한 사유의 시작으로서 ≪장자≫에 나타난 '變'의 사용과 '變'의 가치와 의미를 분석해 보려한다. '變'은 변화와 의미가 비슷하지만, 본고에서 '變'에 강조를 둔 것은 변화라는 순수함을 더 부각시키기 위함이다.[7] 현대사회의 '變'은 인문지성에서 촉발된 變이라기보다, 과학과 기술의 물질적 변화에서 기인한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지체현상도 더 가속화 되고, 사회는 더 혼돈과 혼란에 빠져 갈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이때, 독일의 철학자 야스퍼스가 지적한 차축시대의 인물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들의 사고에 귀를 기울여 보려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철학에서 자유로운 사상을 지닌 ≪장자≫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변화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대처를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거듭하고, 이것이 63변 지속되면, 2의(64-1)승으로 변하는데, 저자는 지금 우리는 수가 얼마나 빨리 늘고,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도 모르는 무감각한 상황에 (2006년부터) 진입했다고 말한다. 에릭 브린욜프슨, 앤드루 맥아피 저, 이한음 역, ≪제2의 기계 시대 (인간과 기계의 공생이 시작된다)≫, 서울: 청림출판, 2014년, pp. 64-66.

5) 송항룡, ≪노장철학의 세계, 동양사상과 환경문제≫, 서울: 모색, 1996년, p.65.

6) 앙리 베르그송, 같은 책, p.158.

7) ≪장자≫를 해석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그리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그 중에 하나가 '變'이 아닌 '化'로 본 것이다. 비록 짧은 글에서 '化', '分', '合', '全'으로 ≪장자≫에서 보는 사람을 관찰하였지만 ≪장자≫의 독해는 다양하다. 顧文炳, ≪莊子思維模式新論≫, 上海: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93年, pp.80-82.

2. '變'의 사용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變'과 관련된 의미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8] 사전에서 확인한 '變'은 갑자기 생긴 이상한 일이나 사고, 때 없이 생기는 재앙, 亂離나 야단이라는 뜻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變은 무엇이 다른 것이 되거나 혹은 다른 성질로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자에서 '變'은 音을 나타내는 䜌(련→변)과 등글월문(攵(=攴)이 합하여져 만들어진 형성문자이다. '䜌'은 실이나 말이 헝클어진 것처럼 사물이 뒤섞이는 것이고, 攵은 일을 하거나 회초리로 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變'은 '마음을 고쳐 사람이 달라진다'거나, '변하는 일'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변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1. 변하다(變--), 변화하다(變化--) 2. 고치다, 변경하다(變更--) 3. 변통하다(變通--) 4. 움직이다 5. (조정에)고변하다(告變--) 6. 놀라게 하다 7. 다투다 8. 속이다 9. 어그러지다 10. 좁다 11. 變化 12. 變故 13. 災殃, 災難 14. 喪, 죽음.

'變'과 같은 뜻을 가진 한자로는 化〔될 화〕, 改〔고칠 개〕, 易〔바꿀 역〕, 更〔고칠 경〕, 革〔가죽 혁〕 등이 있다. 그래서 ≪說文解字≫에는 "變, 更也.", ≪小爾雅≫"變, 易也", ≪玉篇≫"變, 化也"등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變'은 '變化'로 사용되면서 동양사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와 비슷한 말은 진화, 전이, 변환, 변동, 갱생, 변천, 변경, 변전, 기복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동양에서는 "우주에서 삼라만상이 무궁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음과 양이라는 이질적인 두 기운의 작용으로 인하여 모순과 대립이 나타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을 변화라고 한다."[9]고 보았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變化'라는 단어에서 '變'과 '化'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www.kci.go.kr

8) 이하 '變'에 대한 설명은 김덕삼, <대순사상에 나타난 '變'의 의미와 역할 연구>, 제4회 대순사상학술원 외부연구자 세미나 발표(2015년 6월 30일) 자료를 이용하였다.
9)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행림출판사. 1966년, p.36.

분석하면 '變'과 '化'의 의미가 조금 다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변화라는 것은 사물의 성질이나 모양, 상태 따위가 변하여 다르게 됨을 말한다.[10] 즉, 변하여 다르게 된다는 뜻으로 만사나 만물의 浮沈消長하는 현상을 말한다. ≪黃帝內經≫<素問>에 "기가 작용하기 시작함에 생화하고, 기가 흩어짐에 형이 있고, 기가 퍼짐에 번성하여 길러지고, 기가 마침에 象變한다."[11]고 되어 있다. 또한 ≪黃帝內經≫<素問>에 보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즉, "사물이 생겨나는 것은 화에 따른 것이고, 사물이 극에 다다르는 것은 변에서 연유한다. 변과 화가 서로 합하지 않음이 (변과 화가 서로 맞지 않음이) 이룸과 무너짐이 있는 바다."[12]

'작용'을 중심으로 보면 '생성'이라 할 수 있고, '본질'을 중심으로 보면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성숙하는 것을 '化'라고 한다면, '變'은 성숙의 과정을 거쳐 그것이 다른 단계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바뀐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變'이 '化'보다 강한 의미를 가진다. 본고에서 제목을 '變化'로 하지 않고, '變'으로 설정한 것은 변화의 원초적 의미인 '變'에 집중하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變'을 사용하여 탐구할 경우 '변화', '변혁'과 같은 파생된 의미를 함께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化'로 바뀌어 구체적인 성숙 이전의 것에 비중을 두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여도 이것은 '化'보다는 '變'에 의미를 더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러한 미시적 접근을 시도하지 않았다. 이것은 ≪장자≫에서 '變'과 '化'의 구분, 유사 의미를 가진 기타 용어와의 구별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대립되는 견해가 존재하기에 별도의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13]

---

10) 단국대학교부설 동양학 연구소, ≪漢韓大辭典≫(12),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2007년, p.1134.
11) 氣始而生化 氣散而有形 氣布而蕃育 氣終而象變.
12) 物之生 從於化 物之極 由乎變 變化之相薄 成敗之所有也.
13) 특히, 관점에 따라 ≪장자≫에서는 '物化'나 '自化'처럼 많은 용어들이 '化'와 연관되어 사용되기에 '變'보다 '化'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장자≫에서의 변화의 의미 연구를 통해 다음의 논문에서 다루려한다.

≪장자≫에서 '變'이 사용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4] 먼저,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는 모두 32번 발견된다. 이를 각각의 뜻에 근거하여 구분하면, 먼저 變化와 改變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장자≫에 나오는 대부분의 경우가 변화와 개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辯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로서 '同異之變多'(胠篋)이다. 31번의 사용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慮嘆變慸(齊物)
死生無變於己(齊物)
而不得與之變(德充符)
是事之變(德充符)
顔色不變(大宗師)
五變而形名可擧(天道)
九變而賞罰可言也.(天道)
應時而變者也.(天運)
使民心變(天運)
命不可變(天運)
一而不變(刻意)
靜一而不變(刻意)
春秋不變(秋水)
无動而不變(秋水)
變而有氣, 氣變而有形, 形變而有生, 今又變而之死(至樂)
已无變矣(達生)
不內變(達生)
行小變而不失其大常也(田子方)
貴在於我而不失於變(田子方)
神氣不變(田子方)
而无變乎己(田子方)
變固外戰(徐无鬼)
知士无思慮之變則不樂(徐无鬼)
勢物之徒樂變(徐无鬼)
其變也循(徐无鬼)

www.kci.go.kr

14) 王世舜, 韓慕君 編著, ≪老庄詞典≫, 山東: 山東教育出版社, 1995년, pp.115-116.

其所以變其情(盜跖)
觀動靜之變(漁父)
祿祿而受變於俗(漁父)

다음으로 '變'이 다른 음절과 합하여 사용된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變'이 '變更'으로 사용되어 變化更改의 의미를 지닌 것이 1번 있다. '變更易常'(漁父)

둘째, '變化'로 사용된 것이 5번으로 형태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상황을 만드는 것을 가리킨다. 變化之流也(天道), 變化齊一(天運), 世有變化(則陽), 兆於變化(天下), 變化無常(天下).

셋째, '變齊'로 사용된 것이 1번 있는데, 방법의 변경을 의미한다. 予來年變齊(則陽)

넷째, '變容'으로 사용된 것은 5번으로 불안이나 놀람의 상황 속에서 얼굴 표정이 변하는 경우다. 夫子何故見之變容失色(天地), 陽子居蹴然變容曰(寓言), 孔子愀然變容曰(讓王), 則變容易色称不足者(盜跖), 客悽然變容曰(漁父).

이상의 사용 예에서 보면, 표면적으로 '變'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 크게 다르게 사용되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본고에서 찾는 '變'이라는 글자에 그 의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變'이 사용된 예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장자≫가 지닌 나름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장자≫에서 '變'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은 세상일의 관찰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공자의 입을 빌려 이러한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 仲尼曰: 「死生存亡, 窮達貧富, 賢與不肖毁譽, 飢渴寒暑, 是事之變, 命之行也., 日夜相代乎前, 而知不能規乎其始者也. 故不足以滑和, 不可入於靈府. 使之和預通而不失於兌, 使日夜無卻而與物爲春, 是接而生時於心者也. 是之謂才全.」(덕충부)

여기서 말하는 '變'은 주로 세상일의 변화를 말한다. 이러한 변화는 세상일을 비롯하여, 사람의 삶과 죽음까지 포함하는데 이러한 변화에 미동하지 않는 것,

www.kci.go.kr

항상심을 가지는 것이 至人의 경지라고 보았다.

그럼, 항상되다는 것은 '變'과 어떤 관계를 가질까? ≪老子≫16장 "復命曰常"에 대한 宋代 徽宗의 주를 보면, "常字, 對變之詞"라고 하였다. 여기서 '變'은 '常'의 상대적인 의미로 파악된다. 일반적으로도 變과 常은 상대적 의미로 파악된다.[15]

그러나 세상은 변한다. 자연을 보고 도의 원리를 파악한 도가의 입장에서 보면 계절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것은 순리이자 도이다. 여기서 항상된 것은 그 원칙이지 대상 자체가 아니다. 그러므로 道는 시작과 끝이 없지만, 사물은 태어남과 죽음이 있다.[16] 이런 관점에서 보면, ≪老子≫를 주석한 杜道堅의 "常而不變", 즉 항상되며 변하지 않는 것을 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17] 일반적으로 항상되며 변하지 않는 것이 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원리이고 나타나는 현상은 변하고 운동한다.

> 王倪曰:「至人神矣! 大澤焚而不能熱, 河漢沍而不能寒, 疾雷破山而不能傷, 飄風振海而不能驚. 若然者, 乘雲氣, 騎日月, 而遊乎四海之內. 死生無變於己,而況利害之端乎!」(제물)

위 문장에서도 '變'의 사용에 대한 다른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變'은 변한다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문장 전체에서 '變'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즉, 至人이란 삶과 죽음을 포함하여 그 어떠한 것도 그에게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변화에 동하지 않고 항상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장자≫에서 추구하는 至人의 경지이자 도를 깨달은 경지

15) '항상되다'는 의미로서 常외에도 典이나 恒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근거로서 典의 경우는 ≪爾雅≫釋詁上에 "典, 常也"라고 되어 있다. 恒의 경우는 ≪說文≫에는 '常也'로 되어 있고, 반대로 ≪玉篇≫에서는 '常' 이 '恒也'로 되어 있다. 馬王堆 ≪帛書老子≫를 보면, "道可道 非恒道, 名可名, 非恒名"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恒은 常과 통한다. 이로서 변한다는 것과 대조되는 항상되다는 의미를 뜻하는 어휘는 常道, 常規, 常法, 經常, 綱常, 倫常, 法則, 原則, 典, 不變, 不易, 恒久 등을 들 수 있다.

16) ≪장자≫ 추수, "道無終始, 物有死生"

17) 杜道堅, ≪道德玄經原旨≫. "不可道不可名, 自然之天. 常而不變, 先天也. 可道可名, 生物之天, 變而不常, 後天也".

인 것이다.

이는 "비록 과거의 나를 잊었다 해도, 나는 잊어지지 않는 내가 있다. 雖忘乎故吾, 吾有不忘者存"(전자방)는 말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 "不忘者"는 바로 변하고 바뀌어도, 새로 태어나고 사라져도 잊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참된 나를 말하며, 항상됨을 유지하는 그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至人의 맹아일 것이다. 그러기에 이러한 至人은 "정신과 기운이 변하지 않는 神氣不變"(전자방) 상태의 항상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은 세상의 변화 속에 변하여도 그 변화의 원칙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도를 아는 자는 내 자신이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나, 변하지 않는 정신과 기운이 존재함을 안다.

> 喜怒哀樂, 慮嘆變慹, 姚佚啓態., 樂出虛, 蒸成菌. 日夜相代乎前, 而莫知其所萌. 已乎, 已乎! (제물)

위의 문장에서 사용된 '變'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이 문장에 이어지는 아래의 문장에서 변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즉, 변화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旦暮得此, 其所由以生乎. 非彼無我, 非我無所取. 是亦近矣, 而不知所使.(제물)

즉, 변화가 생기는 것은 원래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 변화를 인식하는 것은 감정이다. 그런데 감정이 없으면 내가 있을 수 없고, 내가 없으면 감정이 나타날 데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이 이러한 감정을 만들게 하는지 알 수는 없다고 말한다. 감정을 만들고 변화를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변화는 감정과 관련된다.

세상은 변한다. 하지만 그 변화에 附和雷同하지 않고, 시비와 이해를 초월하여 무심과 절대의 경지에서 노니는 것이 至人이다. 이는 자신의 고집을 피우는 것과 다르다. 혜자가 커다란 박을 가져와서 장자와 나눈 이야기나, 장자와 나눈 죽음에 대한 생각, 無用之用의 이야기 등은 모두 변화하는 대상에서가 아니

www.kci.go.kr

라 근원적인 항상됨의 입장에서 세상의 변화를 보았기에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用과 無用의 사이에 처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是是非非를 꾸짖지 않는다(不譴是非)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18]

> 仲尼曰:「死生亦大矣,而不得與之變,雖天地覆墜,亦將不與之遺. 審乎無假而不與物遷,命物之化而守其宗也.」(덕충부)

이처럼 진리를 깨달았기에 사물과 함께 변하지 않고, 사물의 변화를 운명으로 알고서 그대로 따르며 도의 근본을 지키는 것이다.

이쯤에서 '變'에 대한 ≪장자≫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변을 알고 느낀 것은 인간의 감정, 세상의 변화, 사람의 생사 등 '自然'에 나타나는 현상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감정과 관련된다. 이러한 감정을 알고, 변화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항상심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장자≫에서 추구하는 至人의 경지다.

세상의 存滅도 이와 같고, 사람의 生死도 이와 같다. 生死存滅이라는 변화의 현상 속에 우리는 존재하지만, 결국 이는 天地라는 커다란 방 속에서 일어나는 운행일 뿐이라고 ≪장자≫는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생사관은 氣를 중심으로 한 氣의 離合集散으로 보기도 한다. <지락>에서 장자가 喪妻한 후 혜자와 나눈 대화를 보면, 이러한 생각을 파악할 수 있다.

> 莊子妻死, 惠子弔之, 莊子則方箕踞鼓盆而歌. 惠子曰:「與人居, 長者.老.身死, 不哭, 亦足矣, 又鼓盆而歌, 不亦甚乎!」莊子曰:「不然. 是其始死也, 我獨何能无概然! 察其始而本无生, 非徒无生也而本无形, 非徒无形也而本无氣. 雜乎芒芴之間, 變而有氣, 氣變而有形, 形變而有生, 今又變而之死, 是相與爲春秋冬夏四時行也. 人且偃然寢於巨室, 而我嗷嗷然隨而哭之, 自以爲不通乎命, 故止也.」(지락)

여기서 장자는 혜자의 질문에 "그 시작을 살펴보면 본래 태어남이란 것이

www.kci.go.kr

18) ≪장자≫천하: 獨與天地精神往來而不敖倪於萬物, 不譴是非, 以與世俗處.

없었고, 태어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래 형체도 없었고, 형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래 기도 없었다. 察其始而本无生, 非徒无生也而本无形, 非徒无形也而本无氣."고 말한다. 그러면서 "흐릿하고 어두운 것 사이에 섞여있는 雜乎芒芴之間" 것이 "변하여 기가 생기고, 기가 변하여 형체가 생기고, 형체가 변하여 태어남이 있었던 것인데, 이제 또 변하여 죽은 變而有氣, 氣變而有形, 形變而有生, 今又變而之死"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생사는 사계절의 변화, 자연의 변화와 같다는 것이다. "이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서로 움직여 사시가 운행하는 것과 같다. 是相與爲春秋冬夏四時行也".

그렇다면, 변화를 인지하게 된 것도 '자연'에서지만, 변화에 항상심으로 대하여야 하는 것도 자연의 변화 뒤에 있는 법칙의 깨달음에서 발로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즉, ≪장자≫는 자연에서 변화를 알고 깨달았다. 자연은 변하지만 자연의 변화에는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 그래서 ≪文子≫도 "되돌아가는 것은 도의 항상됨이다"라고 언급했는데, 여기서 되돌아감이라는 것은 바로 운동의 변화를 의미한다.[19] 자연은 운동하고 변화하며, 이러한 자연을 따르는 것이 스스로 그러한 듯이 그러한, 自然而然한 無爲와도 연관된다.[20] 이처럼 ≪장자≫와 도가는 자연을 통해 변화와 변화 속에 변하지 않는 법칙 즉 '道'를 알았다.

이러한 내력은 도가를 구성하는 인물들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인위적이고 세속적인 것보다 자연에 보다 가까운 것을 추구했다. 예를 들어, ≪노자≫의 경우도 물과 계곡 등 자연물을 비유하면서 스스로 그러함의 자연을 얘기했다. ≪사기≫에 전하는 노자의 삶도 세속을 등지고 은둔하러 들어가면서 관윤에게 남긴 글이 ≪노자≫라고 전한다. 또한 ≪장자≫는 물론이거니와 장자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다. 재상으로 모시려는 권유도 뿌리치고, 화려함보다 가난하지만 자유로운 자신의 삶을 고집하면서 살았던 뽕나무밭 관리인이 바로 장자였다. 이처럼 ≪장자≫뿐만 아니라 도가는 다른 사상보다 '자연

www.kci.go.kr

19) ≪문자≫, 原道, "反者, 道之常也".
20) ≪노자≫, 37장 "道常無爲而無不爲"에서 왕필은 順自然하는 것이 無爲라고 하였다.

(nature)'과 '스스로 그러함(自然)'에 밀접하였고, 이를 통해 '變'을 알고 깨달았다 할 수 있다.

3. '變'의 구조

앞서 ≪장자≫에서 발견되는 '變'이라는 글자의 사용을 분석해 보았다. 그럼,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장자≫에서 발견되는 '變'은 어떠한 구조 속에서 존재하는지 알아보겠다. ≪장자≫의 '變'은 자연과 깊이 관련된다. ≪장자≫의 '變'은 자연 속에서 배우고 이해하는 대상이자, 다시 인간과 사회를 해석하는 핵심이 된다. 특히, ≪장자≫에서는 ≪노자≫보다 '자연'이란 개념을 통해서 '도'의 본질적인 특징을 더 강조하고 있다.[21] ≪장자≫는 기본적으로 자연에 입각한 '변화'에 대한 깨달음과 자연에 입각한 변화의 이치를 파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장자≫를 비롯하여 선진시기 도가는 변화에 대한 이해의 뿌리를 자연에서 얻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자연과 ≪장자≫가 말한 자연은 의미가 다르다. 고대에 '자연'의 의미는 지금처럼 자연물을 뜻하지 않았다.[22] '자연'이란 어휘가 최초로 경전에 보인 것은 ≪노자≫로서 초기경전인 ≪시경≫, ≪좌전≫, ≪논어≫에는 보이지 않는다.[23] '自然'이란 단어를 그 字意로 분석하면, 문장

21) 이러한 이유로 ≪장자≫에서는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장자≫에서 '자연에 순응하는' 사상은 자연의 본성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22) 아래의 연구는 저자의 이전 연구를 참고하여 정리한다. 김덕삼, ≪中國道家史序說Ⅰ≫, 서울: 景仁文化史, 2004년, pp.78-79.

23) 그 외에도 ≪墨子≫에서 1번, ≪管子≫에서 1번, ≪荀子≫에서 2번, ≪莊子≫에서 6번, ≪呂氏春秋≫에서 5번, ≪韓非子≫에서 8번, ≪春秋繁露≫에서 13번 사용되었다. ≪노자≫에 사용된 '자연'이란 글자는 모두 5번으로 다음과 같다. 功成事遂 百姓皆謂 我自然.(17장), 希言自然(23장),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25장), 道之尊 德之貴 夫莫之命而常自然(51장), 是以聖人欲不欲 不貴難得之貨 學不學 復衆人之所過 以輔萬物之自然 而不敢爲(64장).

성분과 품사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 중 하나가 '스스로 그러하다'는 뜻으로 쓰인 경우다. 여기서 '自'는 부사로 쓰였고, '然'은 형용사로 쓰여 하나의 서술어가 되었다. 다음은 명사로 사용된 경우로 '스스로 그러하여 그러함 自然而然'을 가리킨다.[24] 자연이란 말이 오늘과 같이 자연물, 자연계 등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선진시기 이후다.[25]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물로서의 자연이란 의미는 당시에는 天, 天地, 萬物 등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선진시기 도가가 사용한 '자연'이란 말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자연물을 가리키는 뜻은 없지만, 자연물의 성질 혹은 본성을 가리키는 뜻은 존재한다. 즉 이것은 자연물이 아무런 제약이나 구속 없이 스스로 그러한 自然而然한 태도를 말한다.[26] 그리고 도가는 그것을 더 강조했다. 그래서 ≪노자≫에서는 "자연은 도가 본받는 것"이라고 말했다.[27] "도가 본받는 자연"이란 바로 본성 그대로 움직이는 스스로 그러한 自然의 본래적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만물이 자기의 본성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그것이 장차 어떻게 되든 모두 자연스러운 결과다. 여기서는 사람이 간섭할 때 따르는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 이처럼 선진

---

24) 어떤 이는 '自然'의 '然'이 부사라고 말하기도 하고(그러나 유소감의 견해에 따르면 이설에 따를 경우, '然'자의 실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확실한 설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혹자는 '自'가 명사이고 '然'은 형용사로서, '自然'은 내부적으로 주술관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것은 구절 속에서 술어 성분으로 사용 될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이상의 내용은 ≪老子 - 年代新考與思想新詮≫, 劉笑敢, 東大圖書公司, 1997년. 한국어 번역본 유소감(1997) , 김용섭 역, ≪노자철학-노자의 연대고증과 텍스트분석≫, 수원: 청계, 2000년, p.120)

25) 張岱年은 阮籍이 ≪達生論≫에서 "천지는 자연에서 태어난다. 天地生於自然"라고 기술한 것에서 '자연'이 '대자연'을 뜻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張岱年, ≪中國古典哲學概念範疇要論≫,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0년, p.81) 그러나 戴璉璋은 ≪阮籍的自然觀≫310쪽에서 완적이 "자연을 지극히 커다란 집합체로 말하지 않았다"고 장대년의 의견에 반대되는 주장을 제기했다.(앞의 유소감 글 120쪽 참고) 즉, 대연장의 주장은 완적의 자연은 대자연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직 누가 언제부터 자연을 대자연의 의미로 사용했는지, 좀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그러나 적어도 선진 이전에는 자연이 자연물이나 자연계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전례가 아직 없으므로, 여기서는 편의상 자연이란 말이 선진 이후부터 자연물과 자연계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았다.

26) 김충열 선생의 경우 '自然'의 '自然而然'됨을 다음처럼 보았다. "'自然'의 '自'는 천지만물을 포괄한 도를 가리키며, '然'은 이미 최고 최선의 공능이 도에 自在하므로, 그 스스로가 갖추고 있는 법칙이 된다. 그렇다면 결국 '도'와 '자연'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연'이란 말은 노자에게서 '自然而然'으로 쓰일 때가 많다".(김충열, ≪노장철학강의≫, 서울: 예문서원, 1997년, pp.218 - 219)

27) 25장. "道法自然"

도가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사유를 하며 변화에 대한 인식을 하였다. 해가 뜨고 달이지면서 변화되는 시간과 계절의 변화, 그리고 이를 둘러싼 만물의 변화가 변화에 대한 인식 근본이고, 변화에 대한 문제 인식의 시작이다.

이처럼, ≪장자≫를 비롯하여 도가는 자연 변화의 이치를 해석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중국사상에서 음과 양의 변화, 오행의 움직임 등도 결국 인간과 사회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자연의 이치에 근거하여 변화를 해석한 것이다. 여기에서 선진도가는 자연을 自然而然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도로 생각하였다. ≪노자≫의 相反相成도 ≪장자≫의 無用之用과 不譴是非 등도 모두 자연의 도에 입각해서 보았기에 일희일비하거나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을 초월할 수 있었다.

사회의 변화, 사람의 변화도 결국 대자연의 이치에 부합할 수밖에 없다. 자연의 이치는 인간 사회를 다스리는 정치에도 적용된다.[28] 즉, 도가 無爲自然해도 삼라만상 모두가 스스로 성장 발육하는 것처럼, 정치에서도 無爲自然을 행한다면 백성들은 스스로 생활이 풍족하여 행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자≫에서는 "내가 無爲하면 백성들은 스스로 길러지고,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면 백성들이 스스로 바르게 되고, 내가 일이 없으면 백성들은 스스로 부유하게 되고, 내가 욕심이 없으면 백성들 스스로 순박하게 된다"[29]고 생각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천하를 안정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다.

자연의 원칙으로 사물을 대하는 것이 바로 '無爲'다. '無爲'는 사물을 자연에 따르게 한다. ≪노자≫에서는 천하를 다스리는 데에 인위적으로 하는 사람은 결코 목적을 성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천하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 ≪노자≫에서는 어지럽게 간섭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가장 좋은 군주는 백성들이 겨우 그의 존재를 알뿐이지만,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은 늘 적합하다고 여겼다. 이것을 백성들은 단지 自然而然한 것으로 보아 마치 본래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안다. 성인도 사물을 대하는 데 있어, 그것

www.kci.go.kr

28) 김덕삼, ≪中國道家史序說 I ≫, 景仁文化史, 2004년, 81-82쪽.
29) "我無爲而民自化 我好靜而民自正 我無事而民自富 我無欲而民自朴"

들의 자연 본성이 발전되어 나아가는 것을 돕지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다. 결국 자연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였던 선진도가에게,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나 현상은 인위적인 인간이 본받아야 할 최고의 모범이 되었다.

그러나 선진시기 ≪노자≫와 ≪장자≫에서 바라본 자연은 그 관심의 대상이 대자연이 아니라 인류사회의 문제였고, 무위자연을 역설하면서 인위적인 것과 대립시켜 자연적인 것을 중시하는 상징이었다.[30] 이처럼 ≪노자≫에서는 정치적인 비판을 서슴치 않고 가하면서 그 이치를 자연의 변화에 순응한 즉, 도에 입각한 관점에서 비판하였다. ≪장자≫도 세상의 부귀영화도 세속의 호불호도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대동소이한 것이고, 심지어 삶과 죽음도 기의 離合集散에 불과한 것이기에 자연을 본받은 도를 따르면서 자신의 삶을 찾을 것을 설파하였다. 결국 사회의 변화나 사람의 변화 모두 대자연의 이치에 부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자≫는 변화에 대하여 자연에서 감각적이고 경험적으로 얻은 것 외에 사유를 통해 세상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고 확장하였다. 변화를 연구하고 변화를 공부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는 의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고 이에 미리 준비하려는 것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연스레 자연의 이치를 해석하며 얻은 결과를 가지고 현재와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여 준비하고자 했다.

자연은 도의 모티브다. 그러므로 ≪노자≫와 ≪장자≫는 세상을 보는데 있어 편견과 이해득실의 좁은 견해로 보는 것을 부정하였다. 지식과 교육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갖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다. 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相反相成하고, 도의 입장에 처해야하기에 세상의 것에 대하여 不譴是非하면서 무하유지향에서 노니는 것을 추구하였다.

---

30) 張岱年은, '자연'이란 '스스로 그와 같음'이란 뜻으로 老莊은 上帝가 창조한 세계를 반대하는 이론적 의미로 사용했고, 魏晋玄學시기 嵇康은 당시의 虛僞적인 禮敎를 반대하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阮籍은 천지만물의 총체를 상징하는 의미로서의 '자연'을 처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연'은 그 이후 별다른 변화 없이 오늘까지 하나의 중요한 철학범주로 전해지고 있다고 보았다. (張岱年, ≪中國古典哲學概念範疇要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0년, 83쪽)

야스퍼스가 지적한 차축시대의 지성이 오늘까지 생명력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아마도 변화에 대한 사유의 큰 틀이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변화의 모티브는 인간에게 주어진 환경이었고, 이것의 가장 좋은 모범은 자연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자연의 이치가 변한다면 새로운 해석이 나와야 할 것이다. 자연의 이치가 변한다는 것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되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시간의 변화도 상대적이고, 생로병사의 패턴도 다를 수 있고, 사람의 생명이 무한해질 수 있고, 아님 생명은 멸하더라도 사람의 인식은 슈퍼컴퓨터에 스캔된 뇌의 정보로 영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자연 변화의 근본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불가에서 말하는 三法印과도 통한다. 변화의 끝을 추구하기보다 변화의 원리와 동인에 穿鑿하는 이유다.

4. '變'의 가치

변화는 도의 움직임이다. 그러므로 인위적 가치에 근거하여 변화의 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장자≫가 설파한 도는 항상된 것이다. 앞서 언급한 至人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항상된 것이 아닌 것은 도가 아닐까? 변화하는 것은 도가 아닐까? '變'은 도의 움직임이다. 道之動이다. 이러한 변화의 원리는 항상되다. 즉 反者道之動이고, 物極必反이다. 지엽적 현상을 도라 할 수 없지만, 나타나는 현상에 내재된 원칙은 항상된 도이다. 마치 도를 도라하면 항상된 도가 아닌 것과 같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이를 운용하는 원리인 도는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自然而然한 것이 도이다. 그러므로 거짓되고 인위적인 것을 따르기보다 항상된 것을 따르라고 설파하였다. 장주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진의 孝公을 중심으로 "세상의 변화에 대하여 생각하고, 정법의 근본에 대하여 토론하며,

www.kci.go.kr

백성을 부리는 도에 대하여 탐구하는 處世事之變 討正法之本 求使民之道"[31] 것을 商君 公孫鞅과 논하면서 ≪商君書≫는 시작한다. 여기서 公孫鞅은 효공에게 시대에 따라 변할 것을 강조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商君書≫도 그랬지만 ≪韓非子≫도 변화의 근본 원인을 '인구의 증가'라는 것에서 찾았다. 이들은 인구의 증가가 경쟁을 유발하고 사회를 몰락시켰다고 보았다. "인구가 증가했지만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었다. 서로 능가하는 것을 도로 여긴지 오래되자 혼란이 생겼다. 그러므로 성인은 이를 이어서, 토지, 재화, 남녀를 구분하였다. 구분이 정해지자, 통제가 없는 것은 불가능했다. 民衆而無制, 久而相出爲道則有亂. 故聖人承之, 作爲土地貨財男女之分. 分定而無制不可."[32] 이는 매우 현실적인 발상으로서 도가와 대비된다.

더 나아가 ≪장자≫<도척>에서는 변화를 일종의 퇴보로 보았다. 이것은 결국 변화를 인정하고 변화에서 도를 찾았지만 전반적으로 현실과 괴리감이 존재했다.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노자≫와 ≪장자≫의 특성에서 얻어진 불가피한 결과가 아닐까 싶다. 그러므로 많은 이들이 기본적으로 그들의 논의에 동의하지만 미시적인 실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영향을 받은 황로학이나 관자의 경우에 가서는 보다 구체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 그래서 ≪관자≫<侈靡>에서는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의 문제다 非人性也. 敝也."라고 지적하면서, 인간의 행위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았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회 현안에 대하여 이견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인 비판을 가한다. 예를 들어 가난에 대해서 "그래서 옛날에 재물에 관대했던 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재물이 많아서다. 오늘날 사람들이 다투어 탈취하는 것은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재물이 적어서 그런 것이다

31) ≪商君書≫, 更法

32) 이야기는 이어서 계속된다. 통제가 없이 이러한 것을 실행할 수 없게 되자, 금지제도를 만들고, 이를 책임지게 하기 위해 관료를 만들고, 또 이를 관리하기 위해 군주를 만들었다는 식으로 사회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비판이 매우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 ≪商君書≫ 開塞. 2500여년전의 이러한 지적은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예를 들어, 인구와 관련하여 인구의 격감을 우려한 ≪2018 인구절벽이 온다≫(해리 덴트 지음, 권성희 옮김, 청림출판사, 2015년)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인구의 격감이 인류에게 예상치 못한 변화를 촉발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이에 대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是以古之易財, 非人也, 財多也. 今人爭奪, 非鄙也, 財寡也."[33]고 말했다. 사실, 이러한 맹아는 ≪노자≫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래서 이러한 성향 때문에 노자를 정치철학자로 보고 노자의 적극적 사회비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변하고, 적극적으로 현실의 문제에 대하여 관여하여 해결하는 것이 商君을 비롯한 법가적 자세였다면, ≪장자≫를 비롯한 도가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을 따르기보다 변화 내면에 있는 근본적인 것을 찾고 추구하려 하였다.

≪장자≫에서 전하는 '變'의 메시지는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 속을 헤쳐 나가야할 현대인에게 변화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한다. 인간은 미래의 변화를 불안해하여 과거의 역사에서 길을 찾는다. 현대인은 급변하는 현실 속에 어떻게 처신할지 알기위해 수많은 처세술과 실용서적에 귀 기울인다. ≪장자≫는 만물의 변을 알고 인정하기에 지엽적인 것에 빠지지 말고, 큰 도를 알고 깨달아 삶에 임할 때 인생이 더 의미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어쩌면 이러한 연유에서 혜시가 장자에게 당신의 말은 너무 크다는 것과 같은 비판을 받았는지 모른다.

변화에 대해 가장 저지르기 쉬운 과오 중의 하나는, 무엇인가가 나쁘면 그 반대쪽은 반드시 좋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34] 그러나 ≪노자≫와 ≪장자≫는 이러한 관점에 반기를 든다.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에 반대하였다. 이는 인간을 중심으로 본 기타 사상과 달리 자연의 이치와 섭리를 중심에 놓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노자≫ 2장의 相反相成을 예로 들 수 있다. 상반상성은 서로 반대되는 것을 향하는 변화가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본) 반대되는 것이 도의 원리 속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함께 만든다는 것이다.[35]

자연은 누구나 보고 즐기지만, ≪장자≫는 자연에서 변화를 발견하고 사유를 통해 철학적으로 승화시켰다. 현대사회에 이러한 것은 커다란 울림으로 전

33) ≪韓非子≫, 五蠹
34) P. 바츨라빅크, J. H. 뷔크란드, R. 피쉬(1988), 박인철 역, ≪변화≫, 서울: 동문선, 1995년, p.37.
35) 김덕삼, <'相生'의 老子적 해석과 실천>, ≪대순사상논총≫ 제14집, 2002년, pp. 409-414. 金德三, <相生與老子思想>, ≪中國道教≫, 73. 2003년, pp.28-32.

www.kci.go.kr

해질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인위적 창조물이 자연물을 극복한다거나 생명공학(BT)의 발달로 인간이 인간을 창조하는 상황에서 자칫 자만에 빠질 수 있는 인류에게, 대자연에서 인간도 그 일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인간의 자만심을 꺾고 결국 변화에 순응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깨닫게 해준다.

이처럼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에서 얻은 변화의 도를 인간사회에 적용시킨 것은 동양사상의 상관성과 유비적 성격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자연에서 벗어나 살 수 없다. 넓게 보면 인간도 결국 자연이다. 상관적 사유가 인간의 몸을 치유하는 한의학으로 확장되었다면, 자연에서 관찰한 변의 원리를 상관적으로 확장하여 인간과 인간 사회의 치료에 사용한 것은 일견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인간과 인간 사회도 자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에 자연의 이치를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설파한 ≪장자≫의 울림이 지금까지 유효하게 전해질 수 있다.

5.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장자≫에 나타나는 '變'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물론 '變'이라는 글자가 나온다 해서 그와 유사한 개념이나 사상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變'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와 유사한 개념이나 사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관성을 떠나서 ≪장자≫에서 발견되는 '變' 자체를 우선적으로 알아보려 하였다. 물론 ≪장자≫에서의 '變'의 사용은 일반적인 사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어쩌면 이는 당연한 결과인지 모른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일종의 토톨로지(Tautologie)다. '變'이라는 전제 속에 이미 '變'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객관적 지표를

www.kci.go.kr

근거로 각 사용 예에서의 특징과 그 이면의 특징을 알아보려 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기호학에서 기표와 기의의 관계하고 유사하다. 본고에서는 이중에서 기표에 집중하여 ≪장자≫에서 발견되는 '變'의 형태를 알아보려 했다. 그리고 이를 '自然'과 관련시켜 구조적으로 접근해 알아보려 했다. 그 결과, '變'의 사용은 일반적인 사용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장자≫에서의 '變'은 다른 사상과 달리, 자연과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변하는 것은 세상의 자연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자연을 운동 변화시키는 법칙이다. 그러므로 변화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참된 것이 아니다. 그 근본을 보고 생각해야함을 상기할 수 있었다.

앞서 변화에 대하여 경계하며 언급했지만, 반대로 변화에서 경계할 것은 변화를 두려워해서 빠지기 쉬운 매너리즘이다. 다른 말로 경로의존성이라고 표현되는 이것은 얼마 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말한 '개구리를 물에 담그고 온도를 조금씩 높여가면 개구리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는 채 죽는다.'는 비유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나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매너리즘은 우리를 개구리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멸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므로 변화를 직시해야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읽고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선각자들은 과거의 변화를 탐구하고 현재의 변화에 대처하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하려 하였다.

≪장자≫에서 말한 坐忘의 방법이나 至人의 경지, 혹은 도에 대한 논의는 어떤 면에서 변화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떤 원리나 변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바람에서 나오는 말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도를 깨닫는 것은 바로 세상의 변화 이치를 알고, 변하지 않는 것을 제대로 안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변화의 원리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변화의 속도가 더디던 빠르던 상관없이 변화에 대해 본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현대 사회에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변화의 피로감을 겪고 있는 오늘, 여기, 우리에게 ≪장자≫에서 전하는 '變'의 철학은 청량감을 넘어,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해결의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www.kci.go.kr

< 參考文獻 >

≪莊子≫, ≪老子≫, ≪韓非子≫, ≪文子≫, ≪商君書≫, ≪黃帝內經≫, ≪說文解字≫, ≪玉篇≫

顧文炳, ≪莊子思維模式新論≫, 上海: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93.

김경희, <≪장자≫의 變과 化의 철학>,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김경희, <장자의 변화로-변과 화의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 철학연구 75권, 2006

金德三, ≪莊子外雜篇研究≫, 中國社會科學院 博士學位論文, 北京: 2002

김덕삼, <'相生'의 老子적 해석과 실천>, 서울: ≪대순사상논총≫ 제14집, 2002.

金德三, <相生與老子思想>, 北京: 中國道教. 2003.

金德三, ≪中國道家史序說 I ≫, 서울: 景仁文化史. 2004.

김덕삼, 이경자, <顔元의 비판정신과 인문학의 반성>, 서울: 유교사상문화연구 62집, 2015

김충열, ≪노장철학강의≫, 서울: 예문서원. 1997.

단국대학교부설 동양학 연구소, ≪漢韓大辭典≫(12),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2007.

송항룡, ≪노장철학의 세계, 동양사상과 환경문제≫, 서울: 모색. 1996.

앙리 베르그송, 이광래 역(1993), ≪사유와 운동≫, 서울: 문예출판사. 1927.

에릭 브린욜프슨, 앤드루 맥아피 저, 이한음 역, ≪제2의 기계 시대 (인간과 기계의 공생이 시작된다)≫, 서울: 청림출판. 2014.

王世舜, 韓慕君 編著, ≪老庄詞典≫, 山東: 山東教育出版社. 1995.

劉笑敢, ≪老子 - 年代新考與思想新詮≫, 東大圖書公司, 1997

유소감, 김용섭 역, ≪노자철학-노자의 연대고증과 텍스트분석≫, 수원: 청계, 2000.

張岱年, ≪中國古典哲學概念範疇要論≫,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0.

최윤식, 김건주, ≪2030 기회의 대이동≫, 서울: 김영사, 2014.

P. 바츨라빅크, J. H. 뷔크란드, R. 피쉬, 박인철 역, ≪변화≫, 서울: 동문선, 1995.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행림출판사, 1966.

해리 덴트, 권성희 역, ≪2018 인구절벽이 온다≫, 서울: 청림출판사. 2015.

www.kci.go.kr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use of 'change(變)' in the text ≪Zhuang-zi≫, and to review the value of the messages released and the meaning of 'change' in ≪Zhuang-zi≫. The fact that the meaning of "Change(變)" in modern society is used even more important is the reason to place importance in the meaning of "Change(變)".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meaningful to investigate how Zhuang-zi, the free spirit of the axile era thought about the meaning of "Change(變)".

To do this, the meaning of 'change(變)' and the usage of 'change(變)' in ≪Zhuang-zi≫ are looked through. The number 'change(變)' used in ≪Zhuang-zi≫ is a total of 31 times with the exception used in the sense of 辯. Of course, the use of "change(變)" in ≪Zhuang-zi≫ is not very different from normal use. In some sense this is a kind of Tautology, because "change(變)" in some sense already contains the meaning of "change(變)" in premise of "change(變)". In this paper, based on these objective indicators,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used in each example and the features of the back side of each used example are examined. This is similar in relation of Signifier and Signifee in semiotics.

In this paper, focusing on Signifier, patterns of "change(變)" found in ≪Zhuang-zi≫are learned.. This work was approached structurally in connection with 'nature(自然)'. Unlike the other ideas, "Change(變)" in ≪Zhuang-zi≫ has a deep connection with nature. Zhuang-zi discovered the changes in nature, and it was philosophically sublimated through the reason in that place. Phenomenon changed, but the principles and the source of its back has always maintenance. Knowing Tao and Reaching the state of acquaintances is possible when one interacts with the maintenance to face the changes,

This can be still valid to be applied to the modern world. To observe the nature and to apply the Tao of the change to the human society seems in line with analogical and correlative characters of Oriental Thought. Humans can not live away from nature. At large human beings also is a natural after all. As the

www.kci.go.kr

correlative thoughts has been extended to Chinese medical to heal human body, the natural principles of "Change(變)" observed in nature also can be extended correlatively to treat human and cure human society meaningfully. So today even though fatigue of change is experienced here, the philosophy of 'change' in ≪Zhuang-zi≫ can present a plan of solving the problem faced in this era beyond refreshing to us.

Key words: ≪Zhuang-zi≫, Change, Nature, Dao, value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5. 12. 31.	2016. 1. 15.	2016. 1. 30.	2016. 2. 19.	2016. 2. 29.

www.kci.go.kr